

유해란, LPGA 아칸소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 나선다



28일 개막...양희영·김세영·임진희 등 출전

‘영암 출신’ 유해란(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2승과 생애 첫 타이틀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유해란은 오는 28일(한국시간)부터 사흘 동안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 71)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유해란은 작년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냈다.

지난해 LPGA 투어 신인왕을 차지한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

올해 대회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한다.

우승하면 대회 2연패이자, 지난 2일 FM 챔피언십 정상에 이어 시즌 2승 고지에 오른다.

2007년 시작한 이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한 선수는 2010년과 2011년 챔피언 쟁야니(대만) 이후 없다.

유해란의 2연패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유해란은 현재 CME 글로벌 포인트와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각각 4위, 상금랭킹 5위, 그리고 평균타수 6위가 말해주듯 LPGA 투어에서는 최정상급이다.

작년에 와이어투와 와이어 우승을 따낸 만큼 코스에 대한 자신감은 이미 차고 넘친다.

더구나 최근 치른 2차례 대회에서 우승-3위를 할 만큼 경기력도 한층 물이 올랐다.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와 3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4위 인뤄닝(중국)은 붙잡히지만, 세계랭킹 2위 릴리아 부(미국)와 2022년 우승자 지노 티피온(태국), 2021년 챔피언 하타오카 나사(일본) 등이 경계 대상이다.

신인왕 레이에서 선두를 달리는 사이고 마오(일본)에 턱밑까지 추격한 임진희는 이번 대회에서 역전을 노린다.

양희영, 김세영, 지은희, 신지은, 이미향, 안나린, 이소미 등도 출전한다.

한편 유해란은 24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 올라 9위에 자리를 잡았다. 유해란이 세계랭킹 10위 이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해란은 FM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 3위 등 최근 치른 2개 대회에서 눈부신 성적을 낸 덕분에 세계랭킹 포인트도 듬뿍 받았다.

유해란이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세계랭킹은 30위였다. 유해란의 약진으로 9위였던 로즈 장(미국)이 10위로 밀렸고 10위였던 셸린 부티에(프랑스)가 11위로 내려앉았다.

유해란의 합류로 10위 이내에 한국 선수는 고진영(5위), 양희영(6위)과 함께 3명으로 늘어났다. 김효주는 19위로 1계단 떨어졌다.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리디아 고는 3위를 그대로 지켰다.

넬리 코다, 릴리아 부도 1, 2위를 유지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보 하우스 디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문정민은 무려 108계단이나 상승해 149위가 됐다. /연합뉴스

진도군청 당구 김행직, 3쿠션 세계 왕좌 도전



전남 당구 김행직(왼쪽에서 첫 번째)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빈투안에서 치러지는 2024 빈투안 세계 3쿠션 선수권에 출전한다.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한국 당구 대표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대한당구연맹 제공>

베트남 25일~29일 세계 선수권 한국 김준태·조명우 등 4명 출전

전남 당구 김행직(세계랭킹 12위·진도군청)이 2024 빈투안 세계 3쿠션 선수권에 출전해 10년 만의 우승을 노린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빈투안에서 열리는 '제76회 세계 3쿠션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세계개틀링연맹(UMB)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인 바오 푸옹 빈(베트남)을 포함해 UMB 상위랭커 17명, 유럽연맹 13명, 아메리카연맹 8명, 아시아연맹 5명, 아프리카·중동연맹 3명, 와일드카드 2명을 합한 세계 24개국 총 48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한국은 김행직을 비롯해 김준태(4위·경북체육회), 조명우(5위·서울시청/실크로드시엔티), 허정환(11위·경남당구연맹), 서창훈(33위·시흥체육회)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 대회 예선은 3명씩 16개조(A-P조)로 나눠 40점 단판제로 치러지며, 각조 1, 2위가 32강에 진출한다. 본선인 32강전부터는 후구없는 50점제로 치러진다.

김행직은 최근 경남고성군수배 전국당구대회에 출전해 최호일(전남당구연맹)과 3쿠션 복식 금메달을 합작했으며, 2024 국토정중앙배 전국당구대

회·2024 태백산배 전국3쿠션 당구대회 등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당구장을 운영했던 아버지의 지도로 어려서부터 당구와 친숙했던 김행직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본격적으로 당구를 시작했고 2007년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한국 최초로 세계 주니어 선수권 우승을 차지하며 '당구 천재' 타이틀을 얻었다.

그는 L조 1번 시드를 확보했으며 후고 파티노(미국), 미구엘라브라도르(베네수엘라)와 예선에서 맞붙는다.

한편 한국은 2014년 '당구 간판' 최성원(휴온스) 이후로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최성원은 당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7회 세계3쿠션 당구선수권' 결승에서 토브노 브롬달(스웨덴)을 꺾고 한국 당구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의 시상대 정상에 올랐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10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우승 상금으로 4만 유로가 주어지는 이번 대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예선전을 시작으로 27일 오후 2시 32강전, 28일 오후 1시와 6시에 16강·8강전, 29일 오후 1시에 준결승전, 오후 7시에 결승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 전 경기는 SOOP(전 아프리카TV)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임성재·김주형·안병훈·김시우, 프레지던트컵 출격

26일 캐나다 몬트리올을 개막...2회 연속 한국 역대 최다 출전 타이

미국과 인터내셔널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이 2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로열 몬트리올 골프 클럽에서 열린다.

1994년 시작된 프레지던트컵은 미국과 별도의 대항전인 라이더컵을 치르는 유럽을 제외한 세계 연합팀이 미국과 격년제로 맞붙는 대회다.

2022년까지 14차례 대회가 열리는 동안 미국이 12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특히 2005년부터는 미국이 9연승 중이다.

미국 샷럿의 퀘일 할로 클럽에서 열린 직전 2022년 대회 때 미국이 17.5-12.5로 이겨 패권을 지켜냈다.

1998년 외엔 이진 적이 없고, 비긴 것도 2003년 한 번뿐인 인터내셔널 팀은 올해 한국 선수들을 선봉에 세워 반격을 노린다.

이번 프레지던트컵 인터내셔널 팀엔 임성재, 김주형, 안병훈, 김시우까지 한국 선수 4명이 출전한다.

임성재, 김주형, 이경훈, 김시우가 나섰던 2022년에 이어 한국 선수 역대 최다 출전 타이 기록을

로, 2회 연속 인터내셔널 팀의 3분의 1을 한국 선수들이 채웠다.

올해는 임성재와 김주형, 안병훈이 세계랭킹으로 자동 출전권을 따냈고, 김시우가 마이크 웨어(캐나다) 단장의 추천 선수로 합류했다.

2년 전 인터내셔널 팀의 패배 속에도 3승을 찍은 임성재,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던 김주형의 활약이 올해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24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까지 진출한 임성재와 안병훈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한국 선수 3명 외에 세계랭킹으로 자동 출전권을 따낸 선수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애덤 스콧, 제이슨 데이(이상 호주)가 있다.

이밖에 코리 코너스, 테일러 펜드리스, 매켄지 휴스(이상 캐나다), 크리스티안 베자워텐하우트(남아프리카공화국), 이민우(호주)가 인터내셔널 팀에서 한국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다.

올해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미국이 우세해 보인다.

세계랭킹 1위이자 2024시즌 PGA 투어 페덱스 컵 챔피언에 빛나는 스키티 셰플러를 필두로 젠더 쇼플러(2위), 콜린 모리카와(4위), 윈덤 클라크(6위), 패트릭 캔틀레이(9위)까지 세계 톱10만 5명이 포진했다.

인터내셔널 팀에선 7위 마쓰야마가 유일하게 세계랭킹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세계랭킹 11위 사샤스 시갈라도 세계랭킹을 통해 자격으로 미국 팀에 합류해 프레지던트컵 데뷔전을 앞두고 있고, 키친 브래들리, 샘 번스, 토니 피나우, 브라이언 하먼, 러셀 헨리, 맥스 호마가 집 풀릭 단장의 추천 선수로 합류했다.

대회는 첫날 포섬(2인 1조로 팀을 이뤄 1개의 공을 번갈아 치는 방식), 이틀째 포볼(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더 좋은 성적을 그 팀의 해당 홀 점수로 삼는 방식) 경기가 진행되며, 사흘째는 포섬과 포볼이 모두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12명이 일대일로 맞대결하는 싱글 매치 플레이가 이어진다. /연합뉴스

‘철벽 수비’ 김민재, 분데스리가가 4R 베스트11 뽑혔다

올 시즌 첫 ‘이주의 팀’ 선정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28)가 2024-2025 분데스리가 4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분데스리가 사무국은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분데스리가 4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11명의 선수로 구성된 '이주의 팀'을 발표했다.

4-5-1 포메이션의 '이주의 팀'에서 김민재는 막시밀리안 미텔슈타트(슈투트가르트), 다요 우파메카노(뮌헨), 피에로 인카피에(레버쿠젠)와 함께 포백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김민재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선정 '이주의 팀'에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뮌헨은 지난 22일 브레멘과의 분데스리가 4라운드에서 5-0 대승을 거뒀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중앙 수비수로 함께 풀타임 호흡을 맞추며 무실점 승리에 힘을 보탤다.

특히 브레멘은 뮌헨을 상대로 단 한 차례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수비벽이 단단했다.



브레멘전 대승 이후 팬들 앞에서 환호하는 김민재. /연합뉴스

소파스코어는 브레멘전에 나선 포백 가운데 김민재에게 가장 높은 평점을 주며 활약을 인정했다. 4라운드 '이주의 팀'에는 김민재를 비롯해 우파

메카노,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 마이클 올리셰까지 뮌헨 소속 선수가 5명이나 포진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9.16(월)-17(화) 오후 5시 한기우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황혼의 찬란한 여정
고정희 개인전

2024. 9. 24. 10:27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